

元 干涉期 忠烈王 服飾政策에 관한 研究

전혜숙·안정희

동아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상섬유학부 교수·동아대학교 대학원 의상섬유학과 패션뷰티디자인 전공

I.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元 干涉期 忠烈王의 服飾政策을 보면 그 어느 왕보다도 적극적으로 元 복식을 受容하는 것이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 당시 고려·元 皇室 간에는 通婚政策을 펼치는데, 元 세조의 딸과 결혼하여 최초의 通婚政策 당사자가 된 충렬왕은 元 황실에 밀착하는 적극적인 對元외교로 元 皇室로부터 확고한 정치적 지위를 보장받는 한편, 고려內에서 왕권의 확대를 도모해 나갔다고 평가되고 있으니, 충렬왕의 親元政策 의도는 服飾政策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추측되므로, 이 연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첫째, 忠烈王의 對元認識과 對元政策을 알아보고, 둘째, 忠烈王代 服飾기록의 분석을 통해서 복식정책과 대원정책과의 상관성을 알아보고, 셋째, 복식정책을 통해 나타나는 충렬왕의 대원정책의 실제성이 무엇인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으로는 高麗史, 高麗史節要, 東國通鑑, 東史綱目, 元史 등 고문헌을 위주로 忠烈王 재위기간 복식에 관련된 기록만을 발췌하여 고찰 분석하고자 한다.

II. 요약 및 결론

고려 25대왕 忠烈王은 원 간섭기에 世子신분으로 父王인 元宗15년 고려·元 皇室간 通婚政策으로 元 世祖의 딸 帝國大長公主를 第1妃로 맞이하여 양국 通婚政策의 첫번째 해당 인물이었다.

충렬왕의 적극적인 대원정책은 高麗王朝의 存續과 관련된 사안으로서, 원의 駙馬가 된 충렬왕은 元 皇室에 적극 밀착하는 方略으로서 元 황실로부터 확고한 정치적 지위, 왕권 확립의 도모와 元 의 수탈과 압제를 최대한 줄이는 입장에서 親元政策을 지향하였음을 알 수 있고, 충렬왕의 복식 관련 기록을 보면, 대원외교성과를 의식한 충렬왕은 開剃라는 머리양식을 통해 적극적인 親元政策을 표방, 胡服制度를 채용하고 있으나, 고려의 정체성 유지와 관련된 의식과 관리들은(왕 즉위복, 혼침전 관리복, 국자감 관원복) 고려복식을 유지하도록 하는 이중적인 복식정책을 엿볼 수 있었으니, 이는 對元에 대해 자주적인 고려왕조를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다.

服飾政策과 對元政策의 상관성을 보면, 그의 적극적인 親元政策은 고려왕조 존속, 약화된 고려 왕권 확립, 원 황실의 정치적 보호로 원의 수탈과 압제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채택된 것처럼, 服飾政策도 독자적인 고려왕조 유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일상복에서는 개체변발을 따르며 왕권을 강화시켜나가는 한편 不改土風의 원칙위에 고려의 고유복식을 고수하는 것은 대원정책의 의도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충렬왕의 服飾政策의 실체는 당시 고려국내 정세와 강대국인 元과의 사이에서 무너져가는 고려왕조의 存續과 王權確立, 王權強化를 위해 선택되었던 실리적인 對內外觀에 따른 政策이었다고 볼 수 있다.